

전체회의[전체회의 II]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중심에 있는 기후정의

2022. 10. 11.(화) 16:00-18:00

주관: 광주광역시, 유네스코(UNESCO)

배경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되는 무력충돌 위기와 같은 기후위기는 특정 상황속에서 취약한 계층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 천개의 커뮤니티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하는 강제 이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수인종은 미국에서는 다른 인종들보다 산화질소를 46% 더 많이 호흡하고, 전 세계 도심 빈곤 인구의 85%가 전체 도시인구의 60%와 비교했을 때 홍수와 같은 재난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이 더욱 심화되어 우리 지역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자주 겪고 있으며, 그 경험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소수인종, 여성, 그리고 청년층과 같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개인들은 인종차별과 기후 변화를 불가분의 관계로 만드는 기후와 관련된 불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라, 동시대 도전과제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들은 기후정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전 세계 여성과 여아와 같은 소외된 계층에 기후변화가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도시들은 기후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장소로써 뿐 아니라, 이러한 영향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관찰을 할 수 있는 장소로써도 역할을 해야 한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3억 명에 가까운 국제 이주민의 52%도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응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적응력에 관한 격차는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해질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는 반드시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기후정의에 대한 국제적으로 강력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몇십 년 간, 국제사회는 2007년 UCLG의 지방정부 기후 로드맵(Local Governments Climate Roadmap)과 2015년 파리 기후 회의(COP21)를 통해 기후변화와 인권 간 불가분의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2021년, UN 인권 이사회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청정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고, 2022년 발표된 IPCC 제 6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물 부족, 식량 불안정, 열악한 보건, 및 주택과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함에 있어, 도시는 기후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성이라는 열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의 도시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와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ICCAR(International Coalition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Cities)-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 국제도시연합은 전 세계 500여개 회원도시와 함께 인종차별과 차별에 맞서는 적극적인 국제 선두로 성장했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포용적인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데 힘쓰고 있다.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윤리원칙선언에서 선언한 윤리원칙의 적용을 보급하고 추진하는 것도 핵심이다. 이는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범적인 방법론들을 더욱 개발하여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완화를 목표로 하는 유네스코 지역 및 원주민 지식체계(LINKS)를 통해 취약계층의 요구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들과 청년이 주도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기후행동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젠더별로 구분된 데이터와 증거를 보강하고, 여성과 청년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양성평등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적 요구(Global Call against Racism)에 대응하기 위해, 인종차별과 차별에 반대하는 로드맵은 인종차별과 차별에 맞서고자 하는 노력에 글로벌 기여를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영감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후정의를 육성하기 위한 행동도 포함된다.

여기서부터, 기후변화 도전을 사회정의 도전으로 결합하면서,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감소 전략과 옹호 전략이 기본적 인권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들이 사회적 포용적 기후행동의 촉진을 위해 그들의 전문지식과 좋은 관행을 공유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목표 및 주요 논의사항

1. 차별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분석
2. 정부가 도입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강조함으로써 기후 정의에 대한 인식 제고
3. 기후 정의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전략,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공유

